

EBS, Quam Libet.

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

1	A, B는 각각 누구? 11p
	<p>A : 성(性)은 버들과 같고, 의(義)는 버들로 만든 그릇과 같으니, 인성과 인의(仁義)의 관계는 버들과 그릇의 관계와 같다.</p> <p>B : 그대는 능히 버들의 성(性)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 수 있겠는가? 장차 버들을 해친 뒤에 그릇을 만들 것이다. 장차 버들을 해치고 그릇을 만든다면 또한 사람을 해치고서 인의를 행한다는 것인가? 천하 사람들을 몰아서 인의에 화를 끼칠 것은 필시 그대의 말일 것이다.</p>
2	누구? 11p
	<p>정(情)이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할 수 있다. ... 한결같이 뜻을 오로지 하고 바꾸지 않는 것이 노력을 쌓아가는 방법이다. 습속은 사람을 바꾸어 놓아 오랫동안 그렇게 지나노라면 사람의 바탕도 바뀌어진다. 한결같이 뜻을 오로지 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신명함에 통하게 되고 천지의 변화와 함께하게 된다.</p>
3	누구? 12p
	<p>신으로부터 창조된 만물은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도 자연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며, 모두 이 섭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만물은 이 섭리로부터 나온다. 또 그 밖에 필연이 있으며, 그것은 전 우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 당신도 이 우주의 일부 분이다. 전체의 자연이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이 자연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 유익한 것이다. ... 당신은 이러한 원리에 만족하고 이 원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p>
4	누구? 12p
	<p>의지의 자율은 ...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 이에 반해 의지의 모든 타율은 전혀 책무를 정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무 및 의지의 윤리성 원리에 맞서 있다. ... 그리고 이 자유는 그 자체가 ... 모든 준칙들의 형식적 조건이다.</p>
5	어떤 사상의 인간관?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적 경험에 의하여 혼란만 당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지성(知性)은 스스로의 힘으로 관념(觀念)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들 관념의 참됨을 확정할 수 있다. · 인간의 정신이 스스로 어떤 진리를 인식할 때 경험은 단지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진리들은 경험보다 앞서 존재한다. 이런 진리들은 경험에 대한 귀납적인 일반화가 아니며, 또한 어떤 경험적인 확증이 없더라도 성립한다.
6	한 번 읽어보기 15p
	<p>이따금 그대는 일과 생각들로부터 해방되어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리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깨어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눌 수도 있다. 마치 자신이 이 대지 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p>